

日本の民家

東京地方民家の平面構成

박 언 곤

一. 東京地方民家の平面構成

머리말

本論文은 筆者가 日本・早稲田(와세다)大学에 在學時, 數年間 民間實測調査研究에 참여하여 축적된 資料를 同大学의 渡辺保忠博士의 指導下에, 建築史研究室의 中川氏와 博士課程의 関, 宮原・朴의 研究팀이 共著 發刊된 「青海市의 民家」(1976年 3月10刊, 310page)를 基準으로 作成하면서 筆者의 小見을 첨가 構成된것임을 밝혀둔다.

用語의 差異로 表現에 無理가있으리라 보나 가능한 이해하기 쉬운 우리의 용어를 선택 대치하였고 적절한 용어를 모색치 못한것은 原音を 영어로 表記 하였다.

用語使用에 대해 무리가 있음은 사전에 양해를 바라고 싶다.

마지막으로 本論文은 平面에 関한 内容만을 整理했으며 構造, 가구법등은 피하고 다음기회로 미루었다.

調査目的및 方向

民家を 郷土文化・역사로 보고, 그 역사적 發展모습을 正確히 파악하여 郷土人들의 財産으로 만드는데 本調査研究의 目的을 두었다.

오래된 民家일수록 平面과 構造의 改造가 심함에, 正確히 創造當時의 모습으로 復原하여 民家역사적 發展過程의 位置를 확인하여 個個建物の 位置를 評價하고자함에 힘을 다했다. 물론 平面이나 構造의 建築的要素만으로는 매듭지을수 없음을 관련분야및 他地域과의 關係, 産業的要素등을 파악하여 향토민속연구에 이바지하고자 함에도 의의를 두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단지 오래된 民家나 保存상태가 좋은 上層民家만을 對相으로하지않고 폭넓고 깊게 資料를 수집코져 近接地區民家등 모두 300棟 以上の 調査資料를 整理하였다.

日本民家の 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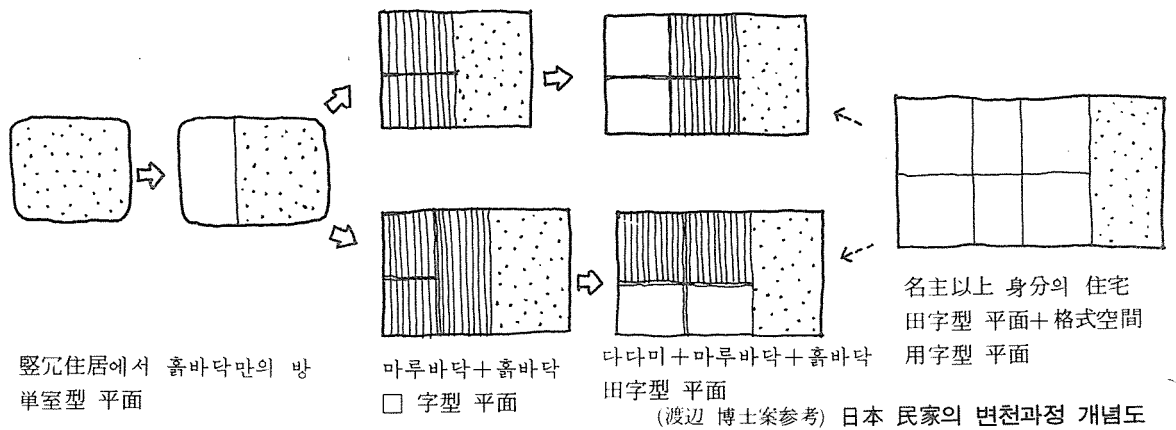
江戸時代^{註1}(1611~1864)의 250여년간 일본은 平和가 계

속되었고 當時의 全国人口는 약2800万~3000万 이었으나 其中 8割이 農民에 속하였다고한다. 日本의 農家(民家)는 이 江戸時代에 대개 비슷한형태로 되어졌고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온 것이다. 그것은, 中世부터 사회조직의 안정과 함께 農業生産이 높아가고 農民의 生活이 안정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江戸時代엔 農村의 經濟水準이 높아지면서 農家(民家)形態의 발전 및 안정을 보게된 것이다. 커다란 建築的 發展의 例로써, 지표(地表)밑을 住居生活바닥으로한 竪冗住居形式이 農家の 經濟的안정및 生活樣式變化로 地表로 올라서게되고 이어서 地表에 마루를 깔아 高床住居의 變遷이 이 時期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같은 農村내에서 土地所有者나 非所有者가 있고 所有規模에 依해 農民間에는 有然히 계급이 形成케되었다. 그중 村을 指數, 감독하는者를 선출하여, 그를 名主(Nanusi)라고 關東地方에서는 불리워졌다. 이들 名主들의 住宅은 一般農民들의 住宅보다 規模와 양식이 조금씩 다르나 江戸末 明治初에는 民家が 名主住宅의 影響을 많이받아 비슷한 수준에 도달케되었다. 커다란 原因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江戸말기부터 農村도 都市의 商品經濟가 침투되고, 곡물경작 외에 養蚕을 하는 農家が 많아지고 經濟的인 윤택에서 一般農家도 各主級住宅樣式을 모방하게 한것이다.

특히 江戸(지금의 東京)에 가까운 關東地方에 養蚕이 盛行하고 그 養蚕作業空間을 지붕밑 空間으로 도입, 民家내에 作業, 生産空間을 形成케 되었다.

民家の 内部空間構造 形式은 地域및 規模에 따라 差를 보이고는 있으나 大部分의 民家は 부엌・居室・寢室・客室로 基本区分이 될수있다. 日常의 出入은 부엌間에 있는 문을 통해 부엌의 扃바닥을 거쳐서 방으로 유도된다. 住宅의 中心部分에 바닥고정 화로(Irori)를 만들어 식사및 가족의 居室(Gakde)이있고 집의 前面方向으로 인접된 客室(Zasikio : 居室性格도 포함)과 안쪽, 깊은곳으로 寢室(Dei-Oku Heya)가 연결된다. 各空間配置는, 中國의 民家와같이 대칭구성은 볼수없고 精神의 生活面에서 神柵



(Buthudan), 장식벽(Dogonoma)의 位置로 空間(방)의 上·下적인 우열들 出入口로부터 멀고 깊은곳에 上座(G-amiza)로 의식하고 사용되는 通例의 配置를 보여주고 있다.

東京地方民家の 平面形式과 變遷

民家は 一般적으로 閉鎖的空間에서 開放的空間으로, 小規模에서 大規模로, 또는 多目的 空間에서 機能分化에 의한 空間分割도, 生活 및 使用의 便利上으로 平面配置의 變化方向을 보여준다.

「青海市의 民家」에 수록된 85棟의 現狀調査에서 84%에 해당 하는 71棟이 田字型¹⁾(Yothumakada) 平面構成을 하고 있다. 그 現狀調査에서 原型을 찾기위해 部材의 혼적調査·가구법·新旧部材의 확인등과 증거도서 및 구두 전달등을 종합하여 復原整理결과를 보면, 85棟中에 48棟이 □字型²⁾(Hiromakada)이고 33棟이 田字型이며 나머지 4棟이 用字型³⁾(Muthumakada)으로 분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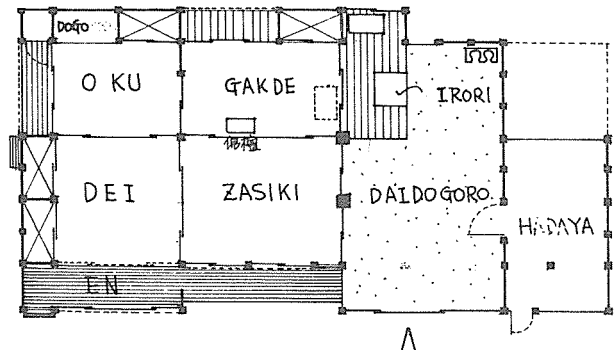
復原된 民家の 平面形式에서 보아, □字型이 古式 임을 쉽게 알 수 있고, □字型이 田字型으로 發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現存民家에서는 □字型形式을 쉽게 볼 수 없고 田字型形式이 압도적으로 많이 찾아지고 있음에 一般적으로 民家라면 田字型平面을 民家の 表準型인 것으로 간주됨은 무리가 아니겠다.

東京地方의 現存民家를 復原하여 平面形式의 變遷過程을 圖表로 정리하면 圖3과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參考로 □字型 以前의 民家實例를 보면, 江戸時代 東京西側의 長野縣諏訪郡福沢村에는 34戶의 民家中에 13戶가 14坪정도의 建坪으로 집전체가 單室홉바닥 공간이었다면 마루바닥과 홉바닥(방과 부엌)을 가진 집이 21戶로써 規模는 평균 25坪의 建坪이었다 한다. 當時에는 Zasiki + 마루바닥+부엌(홉바닥)의 형식을 가진 住宅은 上流農民, 마루바닥+부엌의 구성은 中流農民이고, 홉바닥으로 單室住宅은 下層農民(家)였으나, 江戸(지금의 東京)의 문화 영향으로 급속히 單室住居가 一部高床住居로 發展되어 □字型民家가 形成되었다. 계속해서 名主 또는 그 이



東京 地方民家の 外觀



日本 民家の 방 명칭

上의 身分을 가진 住宅의 영향으로 格式的인 空間構成을 가지게 되어 一般民家の 完成을 가져오게 되었다.

田字型 平面보다 더 순수한 格式空間을 삽입시켜 用字型의 平面構成을 만들고 있으나 이것은 名主 및 特殊계급 등에 한정된 民家로써 一般的인 民家와는 다른 系譜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주로 순수한 格式空間이란 부엌을 통하여 방으로 유도됨이 아니고 正面中間部에 系閑을 設置하는 形式을 의미하나, 그것도 日常生活에서 使用되는 율은 극히 적은 것이다.

實測調査·復原考察例

〈A 民家〉

調査當時現狀은 前面7間, 側面3間으로 田字型平面構

成의 民家이다. 東側端의 道里方向 2間은 방직하는 作業場이다.

부엌東面 및 北面壁에 配置된 기둥에는 안방이 있었던 흔적과 가시세가 끼었던 흔적으로 부엌과 방직작업장의 경계, 북면벽체는 土壁이었음을 알수있다.

Zasiki 방과 Dei 방의 경계에는 문지방이 있으나 구조 현황으로 보아 나중에 설치된 것이며, 여기에 있는 기둥에도 인방과 가시세가 있었던 흔적이 뚜렷함은 全面土壁임을 의미한다. 또 Zasiki 방과 Gakde 방 경계의 문지방도 후에 설치된 것으로(기둥의 흔적으로) 원래는 문지방과 문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방의 형식은 Zasiki 방과 Gakde 방이 한공간이었고 西側의 Dei 방과 Heya 방은 증축되었음을 알수있다.

以上과 같이 平面復原을 정리하면, 現狀에선 7間×3間の 田字型平面形式이 방과 부엌으로 구성하는 前面 5間, 側面 3間の 口字型平面形式으로 復原되는 古式임을 알수 있다.

B 民家

現狀調査에서는 前面7.5間·側面3.5間の 田字型平面으로써, 改造원부분과 흔적이 극히 적은 例로 創造當時의 상태를 잘보존 유진된 民家이다.

各방의 경계선상엔 중간 기둥을 세우지않고 柱間 2間간격으로 유지하여 더욱 開放的인 空間構成을 하고있다.

前面的 마루의 Zariki 방쪽은 半外部空間形式의 바갈뒸 마루식이고, 옆방인 Dei 방 앞은 内部空間形式인 안뒸마루식으로 설치하여 日常生活을 위해 편리한 공간및 出入口으로써의 바갈 마루식, 接客을 위한 안마루식으로 사용상 기능분리를 시켜놓았다.

부엌의 넓이는 3間×4間の 커다란 공간으로, 구석 1間×2間은 식료품창고로 되었으나 기둥을 비롯한 部材가 다른 部材보다는 新材로써 創建當時의 것은 아니다. 또 부엌東側面 지붕의 추녀가 짧게 찢리어 졌으나, 그것은 넓은 지붕밑 공간을 養蠶作業場으로 사용키위해 깊은 추녀를 찢라, 채광을 유도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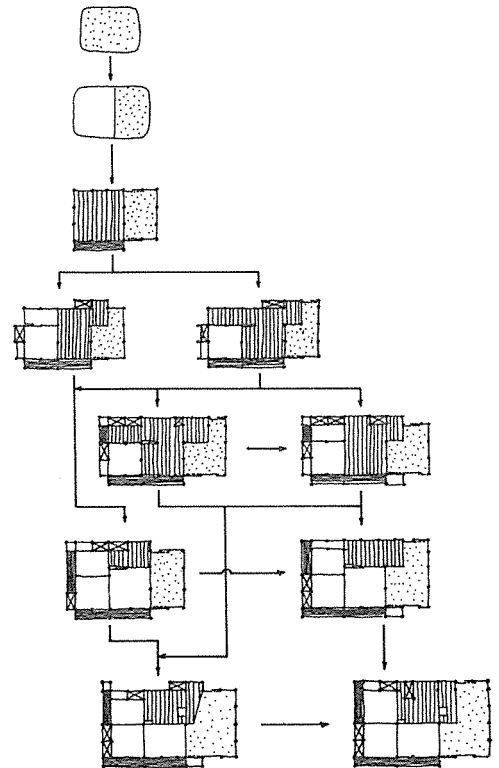
期外の 平面復原考察을 위한 문제점은 보이지않고, 現狀과 같은 復原으로 정리됐다. 創建 추정연대는 江戸末期로, 약120年前的의 民家이다. (調査後 本人의 의도로 없어 지게 되어 現存이 아님).

C의 民家

現狀調査에서는 変形田字型^{注5} 平面으로써 前面 9間·側面 3間の 大規模 民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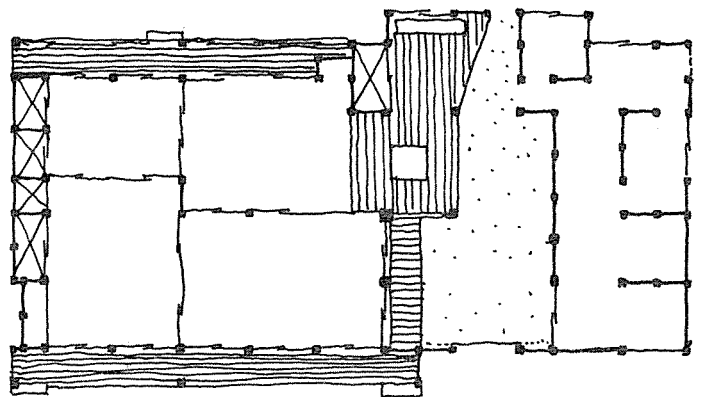
부엌東側의 道里方向 2間은 作業空間으로 되어있고, 부엌의 北側은 改造가 대단히 심하게 되어있고 집후면도 많은 改造의 흔적을 보이고있다. 作業空間의 一部 기둥이 古材이고 대부분이 新材로 되어 있음에 作業場은 증축부분임을 보여주는 듯싶다.

특히 부엌과 작업장 경계선상에서 0.5間 간격으로 기둥이 있었던 흔적이 보이며 남아있는 기둥에서도 인방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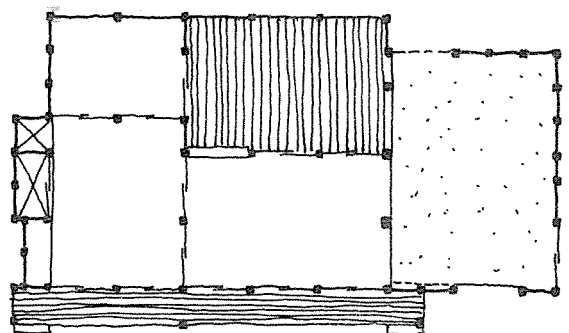


東京地方民家の 平面發展圖

民家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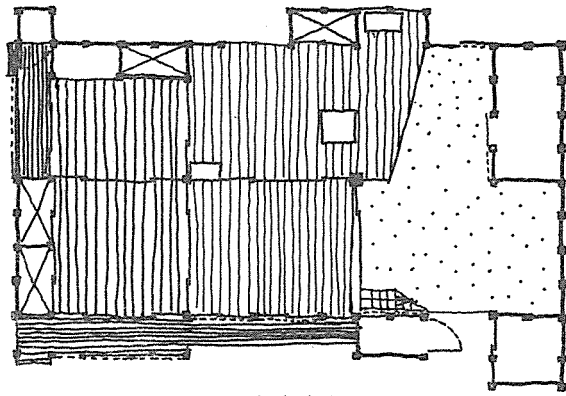


현황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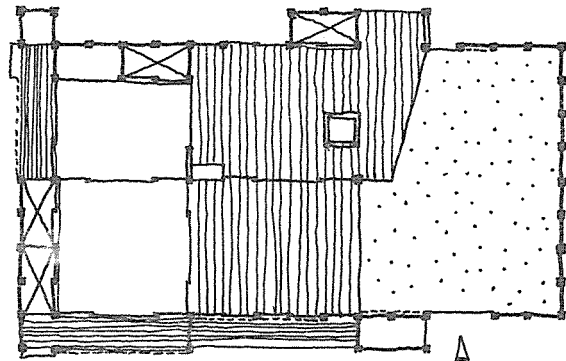


복원평면도

民家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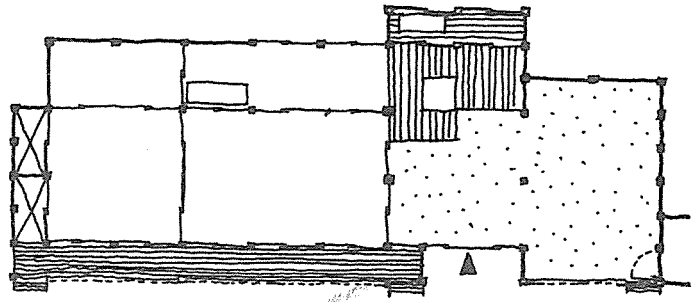


현황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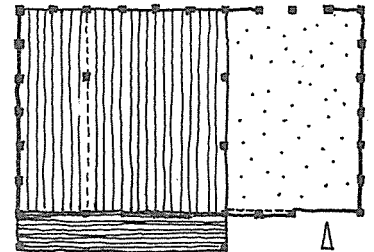


복원평면도

民家 C



현황평면도



복원평면도

가시세가 끼였던 흔적이 확실히 남아있음은 이부분이 흙벽이고 작업장은 증축임이 확실했다.

북면(후면) 古材기둥에서도 인방과 가시세의 흔적으로 흙벽이였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Zasiki 방은 3間× 2間の 넓은방으로 인접하고 있는 Dei 방과 Gakde居室, Die 방과 Heya 방의 경계선상에서 각각 기둥의 흔적(짚라남음)을 발견했다. 그러므로 흙벽외의 開口部の 기둥배치가 모두 1間 간격으로 배치됨은 古代形을 보여주고 있다.

Zasiki 방과 부엌 경계에는 단면이 7.4×8.1(寸), 7.0 × 8.1(寸)의 당상히 큰 2개의 大黒柱가 있다.

이상과 같이 平面的 復原考察로 前面 7間·側面 3間の 現狀平面形式과 같은 변형田字型平面으로 復原되었고 변형田字型 民家로써는 古式으로 보여진다.

소 결

復原된 平面形式을 기준으로 東京地方의 民家規模는 20坪~30坪의 建坪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18세기 후반 인접지구와 비교하여 보면 작은 규모임을 알수있다.

口字型平面이 많이 보이고 있음은 古形式을 오랫동안 지속하였음을 보여주며, 전체적으로 民家の 變化 過程과 그 体系를 뚜렷이 찾아볼수 있음이 커다란 특징으로 보겠다.

註 1 : 徳川가 江戸(現·東京)에 의해 政治·經濟·文化의 中心地로 된기간. 본격적 近代化에 박차를 가한 明治時代가 시작되기전까지.

註2,3,4 : 부엌(흙바닥)을 제외한, 高床부분의 공간구성 형태에 의한 분류, 圖面 2와 3 參考. 괄호안의 표기는 日本용어의 발음임.

註 5 : 高床부분의 방 구분이 4개로 분리되어, 완전한 田의 형태가 못되고, 田 또는 田 등으로 구성된 형태.

弘大講師